

8.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·광주 공동유치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9월 30일
-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4일
- 상정일자 :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10월 17일) 심사 유보

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(재상정)

제2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11월 23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)

□ 주요내용

가. 대회개요(안)

- 대 회 명 : 2038 대구·광주 하계아시안게임
* 영문명 : 2038 Daegu-Gwangju Asian summer Games
- 대회기간 : 2038. 9. 19. ~ 10. 4.(16일간)
- 장 소 : 대구·광주 일원
- 참가규모 : 45개국 15,000명 예상
- 대회규모 : 37개 종목(올림픽 정식종목 28, 추가종목 9)
- 사 업 비 : 총 1조 817억원(국비 3,246 지방비 4,593, 사업수입 2,978)
* 대구 5,528억원(운영비 3,039, 시설비 2,489), 광주 5,289억원(운영비 3,039, 시설비 2,250)

나. 개최목적

- 글로벌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
- 도시 브랜드 제고 및 영호남 상생발전 원동력 지속
- 영호남 인적·물적자원 연계와 교류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 기여
- 글로벌 초광역 남북경제권의 토대인 달빛고속도로 조기 건설 지원
- 저비용·고효율 대회로 개최하여 실속있는 경제 파급효과 거양
- 대형 국제스포츠대회를 통한 사회문화적 부대효과 도모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□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대구·광주 공동유치를 위하여 「국제경기대회지원법」 제6조(대회 유치 승인)에 따라 미리 대회 유치여부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,
- 2038 대구·광주 하계아시안게임(2038 Daegu-Gwangju Asian summer Games)은 2038년 9~10월 중 16일간 대구·광주 일원에서 35개 종목(올림픽 정식종목 28, 추가종목 9), 45개국 15,000여명의 선수, 임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.

□ 검토결과

- 하계아시안게임은 아시아 45개국, 46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우호 증진,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국제스포츠 축제로, 대구·광주 양 도시의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는 경제성 확보와 영호남 동서 화합 및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대회 유치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음.

- 대구·광주 양 도시에서는 2022년 10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내에 국내 후보도시 선정계획서 제출(대한체육회) 및 2023년까지 정부 승인(문체부, 기재부)을 거친 후 2024년도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(OCA) 유치신청 및 현지 실사단 방문을 통해 개최도시 확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음.
-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, 아시안게임의 총 사업비는 약 1조 817억원 (대구 5,528억원, 광주 5,289억원)으로 추정되며, 이중 국비 3,246억원 (30%), 지방비 4,593억원(42.5%)이고, 사업 수입은 2,978억원(27.5%)으로 추산하였음.

< 2038 하계아시안게임 재정조달계획 >

(단위: 백만원, %)

구 분		금 액	소 계	비 율
국고보조금(기금)		324,600	783,900	30.0
지방비		459,300		42.5
자체 수입	입장권	35,860	297,771	7.1
	회장(후원)	132,025		1.8
	방송중계권	40,885		2.0
	입촌비	12,695		1.6
	기타수입 (임대수입 등)	76,306		3.5
합계		1,081,671		100

- 경기종목 배정은 양 도시의 종목별 국제 규격 경기장 보유 여부, 체육계의 선호도, 경기장 여건, 종목별 체육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협의하여 배정할 계획으로 있음. 축구, 농구, 배구 등 11개 공통 종목을 포함하여 대구시는 23개 종목, 광주시는 25개 종목 배정을 고려하고 있음. 향후, 16년 간의 준비기간이 있어 종목별 성장성,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종목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해 보임.

- 경기장과 관련하여서도, 대구시의 경우 신·증축은 다목적(실내) 종합체육관 2개소(1,400억원), 조정·카누 특설경기장(40억원) 정도를 고려하고 있음. 이는 양 도시가 국제대회 개최의 경험이 많고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경기장의 개·보수를 통한 활용도를 최대화하고, 신축은 최소화하되 대회 후 활용도가 높은 형태(다목적 체육관 등)로 추진한다는 방침은 적절한 접근으로 보임.
- 다만, 대회 개최까지 16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 이용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, 대구시의 실내체육관 부족이 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영조물의 특성상 건립 후 활용도가 떨어지면 관리·운영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,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 분석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좀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음.

< 특·광역시 실내체육관 보유현황 >

구 분	서 울	부 산	대 구	인 천	광 주	대 전	울 산
관람석 3,000석 이상	4	4	1*	2	2	1	2
관람석 5,000석 이상	3	3	-	2	2	-	1

* 대구 유일의 관람석 3,000석을 보유한 대구체육관은 1971년 준공(51년 경과)

- 그 밖에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의 정책제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, 체육, 문화,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영·호남의 대표 도시의 공동 개최이기에 영·호남의 화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, 개최도시의 인지도와 브랜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와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 노력도 요구됨. 또한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양 도시의 정치 환경도 변화가 있었으므로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하여 공동유치의 당초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2038년 이전에 경기장 신축공사를 완료하여야겠지만, 경기장 신축 비용은 현재 추정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?		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B/C 분석을 하고 있으며,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제 정세라든지 고물가 상황 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	
경기장(체육관)을 짓고 난 뒤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용에 대책은?		현 실내 체육관의 경우 농구단이 들어 오기 전에도 시민들의 수요가 많았던 상황이며,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수요를 잘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.	
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추진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며, 스포츠 대회 유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(부채)에 대해서도 동의와 의견 공유의 시간이 필요함. 이런 우려에 대해 시민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설문조사라든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,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?		2021년 6월부터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, 현재까지 24만 5,000명에게 동의를 받았으며, 더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음. 또한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등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음	
광주시의회에서 부결시 대구시의 다음 행보는 어찌되는지?		대구시의회에서 동의해준다 하더라도 광주에서 진행이 안된다고 한다면 대회 유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. 다만, 대구시가 잘 진행되면, 광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함.	
2021년 6월부터 진행해온 유치활동에 관하여 아쉬운 점이 안건 상정 전 광주시, 광주시의회와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우선이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며, 대구·광주시 의회간 조율 등 공론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?		2021년 6월부터 국회, 대구, 광주시에서 유치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음. 다만, 그 사이 상황 변화가 있었으므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듦. 향후 대한체육회 승인, 문체부 사전 타당성, 기재부 예타 등 일정에 맞춰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음.	

5. 토론요지

-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향후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 문제, 공동유치도시인 광주시의회 여론조사 부실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한 본회의 미상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후 유치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

10. 첨부서류

- 위원회 의견 제시 : [붙임1]

[붙임1] 위원회 의견 제시

2038 하계아시안게임 대구·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 의견 제시

- 대구시는 광주시와 함께 2038 하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여 스포츠를 통한 동서화합과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38 하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고자 노력 중이고 그 우리 위원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.
-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 심사를 위한 사전 간담회(3회)와 대구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및 현안 간담회(3회)를 거쳐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, 10월 17일 문화복지위원회 안전 심사 결과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본 안전에 대하여 심사유보 의결을 하였습니다.
-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 등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시민 공론화 과정과 공동유치 도시와의 협의 등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고,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의견수렴, 대시민 보고회 개최, 8개 구군 이통장 회의자료 반영, 범시민 서명운동 지속 추진 등 동의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
-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연구결과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이 1.10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 활성화에 기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기관의 공신력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향후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 문제, 공동 유치 도시인 광주시의회에서 여론조사 부실의 문제 제기로 본회의 미상정

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

- 따라서,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유치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대회 유치 노력을 기대하며, 다음과 같이 대구시가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한 후 유치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.
 - 一. 대구와 광주 양 도시 시장과 시의장 등 4인의 협의를 완료한 후 유치를 추진해 줄 것
 - 一. 공동유치 준비위원회를 민선8기 기준으로 교체하여 줄 것
 - 一. 대시민 서명 확대, 8개 구군 이통장 회의자료 제공 및 대시민 홍보 강화하는 등 시민공론화 지속 추진
 - 一. 미래세대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사업비 추계로 저비용·고효율대회 추진방안 제시